

강사소개



김영자 | 민요

- 현)한국전통예술진흥회 민요강사
- 해도동 평생교육 민요강사
- 해맞이호미꽃예술단 민요강사
- 국립 국악단 조경희 선생님 전수
- 박소연 사서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57호 전수자



최현화 | 무용

- 최경미국악학원 원장
- 경상북도학생회관 강사
- 사)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 포항부지부장
- 포항마루연희단 단원



진귀자 | 가야금

- 현)포항가얏고 예사랑국악원장
- 해맞이호미꽃예술단 강사
- 환호중학교 강사 역임
- 여성회관 강사
- 청소년 수련관 강사 역임 외 노인복지센터 다수 출강



이염태 | 사물

- 초생달 풍물단 회장

살아숨쉬는 이곳은 형산강

백로가 날아들고 청둥오리떼가 헤엄치며 물수리가 사냥을 하는
이곳은 자연 다큐멘터리나 사진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힘차게 살아난 우리 지역의 형산강입니다.



고니[Tundra Swan]

오리과에 속하는 철새로 흔히 북극(北極)의 고지(高地)나
주로 조약지(沼澤地)·하천(河川)·호수(湖沼)에서 활동하며
고니(高尼)·북극(北極)을 번식지는 알래스카 북부
한연(寒連)을 제2(第二)로 최장(最長)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항 형산강에서 고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연화
도약하는 포항

창조도시 포항
Creative Pohang

포항 해맞이호미꽃 예술단

제17주년 기념 정기발표회

2014. 11. 20(목) 18:00~19:3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주 관 포항해맞이호미꽃예술단

주 최 pohang
포항시

후 원 포스코, (사)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식순

1부행사 18:00 ~ 18:20

- 국민의례
- 연혁소개
- 단장인사
- 축사 - 포항시장, 포항시의회의장
- 격려사 -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장

2부행사 18:20 ~ 19:30

- 민요 : 비나리 황보재영 외20
- 무용 : 민요산조(부채춤) 허정희 외2
- 가요 : 춘향가중 사랑가 황정심 외7
- 민요 : 평양가 정선례 외17
- 댄스(특별출연) 그림속지역아동센터 10명
- 가요 : 아월삼경, 봄노래 주혜정 외9
- 무용 : 장고춤 배동숙 외2
- 색소폰(특별출연) 김종수
- 민요 : 선유가, 풍구타령 이두선 외4
- 민요 : 옹헤야 전단원



모시는 글



화창한 날씨에 기분 좋은 공연과 함께하는 오늘은 그동안 전통국악과 문화창달을 위해 성장해 온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이 어느덧 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은 지난 1997년 창단 이래 예술단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과 여러 행사의 개최와 참가를 거듭하면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 지킴이로서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이웃을 위해 공연을 개최하며, 포항시 전문자원봉사단으로서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눔과 화합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해맞이호미곶예술단의 발전을 위해 늘 성원해주신 포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장님, 나이 많은 단원들을 가르치기 위해 고생하신 훌륭한 강사님들과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풀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만큼은 세상사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 내려 놓으시고 즐겁고 신나는 공연에 맞춰 기꺼이 흥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 단장 정 선 례

축사



깊어가는 늦가을 밤을 아름답게 수놓아 줄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의 열일곱 번째 맞는 정기공연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 한해도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신 정선례 단장님을 비롯한 예술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은 창의 의 표출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부가가치로 이어집니다. 우리 시는 포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문화'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문화예술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문화예술을 사치스러운 것, 낭비적인 요소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지금은 창조적 행정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과 같은 단체들이 결국 우리 포항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기공연도 뜻 깊은 행사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당부 드리며, 단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포항시장 이 강 덕

축사



만추의 아름다움 가득한 계절에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의 17번째 정기공연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가락, 우리장단을 익히고 연습하여 훌륭한 발표회를 준비해주신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 정선례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은 활기찬 노년, 실버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통해 같은 세대의 여러 어르신들은 물론 우리 포항시민 모두의 희망과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국악 보급에 앞장서며 우리 지역문화 창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잊은 배움과 열정을 통해 훌륭한 우리 가락의 멋과 아름다움을 우리 시민들에게 선사해주시는 단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연 또한 풍성한 우리 가락 속에서 53만 포항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단원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신명나는 공연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기공연을 축하드리며,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포항시의회의장 이 철 구

격려사



가을바람과 국화향기의 그리움이 서서히 물들어 가는 가을처럼 아름다운 세월을 지나는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의 제17회 정기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악의 전통계승을 위하여 지난 16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아끼고 가꾸며 소중하게 여기며 노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아나서는 봉사정신은 우리 포항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었을 줄로 판단합니다.

오늘 제17회 포항해맞이호미곶예술단의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표회를 위하여 새악시 같은 수준은 마음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익힌 실력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포항시 노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노고에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사)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장 김 병 관